국내 제약·바이오, 건기식·화장품으로 사업 다각화 '성과'

유한양행 생활건강 사업 키워
오상헬스케어와 파트너십 강화

동국제약 헬스케어 사업 성장세
일반의약품서 생활용품으로 확장

메디톡스 'MT961' 특허등록
체지방 감소 도움… 제품 출시 예정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통적인 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활발하게 확장한 데 이어, 이를 새 캐시카우로 정착시키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3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이 생활건강 사업을 전략적으로 키우며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올해 1분기 생활건강 사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46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생활건강 사업의 활약 덕분에, 최근 3년간 매출은 2023년 1813억원, 2023년 2153억원, 2024년 2406억원 등을 기록했다.

유한양행은 신제품을 지속 출시하고, 지난해 4월에는 기존 '생활유통사업부'를 '생활건강사업부'로 개칭하는 등 사업 경쟁력을 높였다. 실제로 혈당관리 유산균 '당큐락', 약국용 혈당측정기 '유한당체크' 등 당뇨병 환자를 비롯해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으며 소비자 접점을 대폭 늘렸다.

배우 김남주가 혈당관리 유산균 '당큐락'을 소개하고 있다. /유한양행

지난 2015년 출시된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은 현재 총 8종의 제품군을 이루고 있다. /동국제약

올해 들어서는 오상헬스케어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오상헬스케어에 당큐락 해외 판매권을 부여하는 등 유한양행은 당큐락을 앞세워 글로벌 진출도 노리고 있다. 당큐락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아이템을 발굴할 계획이다.

최근 선보인 '유한당체크'을 통해서도 오상헬스케어와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해당 제품은 체외진단 분야 사업을 영위해 온 오상헬스케어가 개발했고, 유한양행이 판매한다.

동국제약의 헬스케어 사업도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동국제약의 헬스케어 사업 매출은 7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19%에 달하며 동국제약 사업부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해 왔다.

이에 대해 동국제약은 기존 일반의약품 브랜드를 생활용품 브랜드로 확장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상처관리에 쓰이는 마데카솔에서 피부 트러블 브랜드 마데카 메디패치로 제품군을 넓혔다. 생약성분 잇몸약 인사돌은 잇몸건강 브랜드 덴트릭스로 특화됐다. 혈액순환 일반의약품 센시아는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는 의료기기 압박밴드, 압박스타킹 등으로 파생됐다.

특히 더마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는 동국제약의 독자 원료와 기술력을 집약해 차별화한 브랜드다.

대표 제품인 마데카 크림의 경우, 2015년 출시 후 지난해 누적 매출액 1조원, 누적 판매량 6800만 개를 돌파했다. 이어 올해 3월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 7300만 개를 넘기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마데카 크림은 브랜드 핵심 성분인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탄력, 진정, 보습 효과를 모두 갖췄다.

동국제약은 현재 미국 아마존, 일본 큐텐 글로벌 채널에서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센텔리안24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도 건강기능식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메디톡스는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프로바이오틱스 'MT961'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올해 4월에는 MT961 특허 등록도 완료했다.

메디톡스는 오는 2026년 상반기 'MT961'를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해당 원료는 전임상시험,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체질량지수 25kg/㎡ 이상 30kg/㎡ 미만의 만 19~70세 성인 남녀 120명에서 12주간 매일 섭취시 몸통, 팔, 다리 등의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이 감소했다.

메디톡스는 앞서 에탄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능을 가진 미생물, 그를 포함하는 조성물 및 키트 등의 특허를 등록하고 숙취해소용 유산균제 '칸의 아침'를 선보인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체지방 감소 프로바이오틱스 'MT961'은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핵심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칸의 아침으로 쌓은 노하우로 후속 제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SK바사, 폐렴구균 백신 생산시설 추가 확보

안동서 백신 생산시설 증축 준공식
PCV21 후보물질 생산기지로 활용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협력 결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전세계 폐렴구균 백신 시장 진입을 위한 대규모 상업 생산시설을 추가로 확보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7일 경북 안동 백신 생산공장 '엘 하우스(L HOUSE)'에서 폐렴구균 백신 생산시설의 증축을 축하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증축된 시설은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Sanofi)와 공동 개발 중인 21가 폐렴구균 백신(PCV21) 후보물질 'GBP410'의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증축을 단순한 인프라 확대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의 실질적 결실로 보고, 향후 글로벌 출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확장 체결한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개발 프로젝트도 빠르게 진전시킬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오른쪽)과 사노피 토마스 트리옹프 백신 사업 부문 수석 부사장이 지난 27일 경북 안동 백신 생산공장 '엘 하우스'에서 열린 폐렴구균 백신 생산시설 준공 기념식에서 핸드프린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노피 토마스 트리옹프 수석 부사장은 "PCV21 3상 임상 개시에 이어 이번 생산시설 준공은 사노피와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협력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라며 "우리는 폐렴구균 질환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중요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오늘 준공식은 단순히 완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사노피가 지난 11년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결실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사노피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원 팀, 원 골(One Team, One Goal)'의 모토 아래 글로벌 도약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증축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존 L HOUSE 내 백신 생산동을 확장, 약 4200㎡(1300평) 규모의 신규 공간을 확보했다. 해당 시설은 21가 폐렴구균 백신 후보물질 'GBP410'의 생산기지로 활용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cGMP) 인증도 갖출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트러블부터 모공까지 패치로 관리해요"

CJ올리브영 '케어플러스'
레티날 모공 마이크로 닷 패치

CJ올리브영이 자체 브랜드 '케어플러스'에서 트러블 이후 넓어진 모공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신제품으로 '레티날 모공 마이크로 닷 패치'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케어플러스만의 독자적인 마이크로 닷 기술을 집약해 강력한 유효 성분 흡수력을 갖췄다. 하나의 패치에 약 2500개의 마이크로 닷을 탑재해 히알루론산 유효 성분을 집중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얼굴 나비존, 코, 미간, 턱 등에 밀착되도록 설계된 인체공학적인 맞춤형 디자인을 적용해 국소 부위에도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4주 사용 후 모공 부피가 25.51%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레티놀보다 효과는 빠르고 자극은 적은 '레티날' 성분과 피부에 닿자마자 즉시 활성화되는 저자극 '레티노이드' 성분을 함유한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치약 1회 사용으로 구취 줄인다

2080 '덴티리프 구취케어 치약'

애경산업은 구강 관리 브랜드 2080에서 '덴티리프 구취케어 치약'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구취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관리해 1회 사용만으로도 구취 유발 성분인 황화수소와 메틸머캅탄을 각각 96.7%, 97.1%씩 줄인다. 또 1450ppm의 고불소 처방이 잇몸질환과 충치의 원인이 되는 진지발리스균과 뮤탄스균을 복합 억제한다.

이와 함께 녹차, 유칼립투스, 캐모마일 등 허브 추출물 6종을 함유하고, 리프레싱민트향이 더해져 양치 후 개운함도 경험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대웅제약, 차세대 골대체제 개발 박차

'BMP-2' 원료의약품 허가 획득

대웅제약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골 재생을 촉진하는 단백질 'BMP-2' 원료의약품 허가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측은 국내 최초로 단백질 단일 성분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음으로써 기술력, 품질 관리 등에서 역량을 입증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BMP-2는 골 생성 유도 단백질로, 골 결손 부위에서 줄기세포를 골세포로 분화시킨다. 골절이나 디스크 수술 후 골유합 치료에 쓰이는 골대체제 등에 적용되는 소재다. 대웅그룹의 특수관계 기업인 시자바이오가 개발한 '노보시스'(사진), '노보시스 퍼티' 등이 해당 단백질로 설계됐다.

노보시스 퍼티의 경우 올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국산 융복합 의료제품으로는 처음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대웅제약은 BMP-2를 활용해 차세대 골대체제를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산 원료와 의료기기 중심의 기존 시장에서 자체 기술로 국산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썬키스트 소다', 광고 누적 조회수 3000만

광동제약, 공개 2개월 만의 성과

광동제약은 '썬키스트 소다' 신규 광고가 공개 2달 만에 누적 조회수 3000만 회를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튜브에서 약 1300만 회, 인스타그램에서 약 1700만 회 등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광고는 '캘리포니아 바이브, 초긍정 썬키스트'를 주제로 하며, 분식집, 정류장, 카페, 거실 등 총 4편으로 구성됐다. 특히 가수 이영지와 코미디언 이은지가 등장해 공간별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풀어낸다. /이청하 기자